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엄숙히 공표한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것이다.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
4. 전국각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영생탑을 건립할것이다.

1.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주체 101(2012)년 1월 12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여러 건설대상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맡고있는 평양민속공원, 영웅거리고기상점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여러 대상들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추진실태와 시공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건설대상들마다에서 지휘관들에게 남은 공사량은 얼마인가, 자재보장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는가, 시공에서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특히 날이 갈수록 자기의 룬판을 드러내고있는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잘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있는가, 당창건기념탑, 서해감문,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에예술극장을 비롯한 축소판건축물들이 원상그대로 세워지고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였다.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최근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진척시킬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도입하였으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건설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높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공사지휘부 일군들이 공정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든 결과 건설을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그 성과를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건설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특색있게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 한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 건설대상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 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인것만큼 건축물들의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며 주변의 자연풍치에 맞게 지대정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하나를 건설해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평양민속공원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멀리에서 보나가까이에서 보나 모든 대상들을 실감이 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평양민속공원건설은 품이 많이 들고 기술공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어려운 공사인것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관람시설들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영웅거리고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을 곳인것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시공에서 철저히 인민성, 친절성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맞게 련관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운수기재 등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안고 총공격전의 기상을 더욱 세차게 떨침으로써 맡겨진 건설대상들을 제기일에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과 같다

미국의 AP통신이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오종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주제105땅크사단을 방문

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는데 거룩한 영상을 수록한 기록영화 화가 새로 나온 소식을 3일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최근 정예의 땅크부대를 방문하시는 기록영화를 조선중앙TV방송이 방영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를

방문하시면서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군시찰을 진행하시였는데 그 모습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과 신통히도 같았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시찰을 방불케 하였다. 군인들은 환호성을 터치며 김정은령도자의 존함을 웨쳤다. 본사기자

2. 16기념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 결성

2. 16기념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가 6일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

경사로 뜻깊게 기념할데 대해 토의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준비위원회는 기념보고대회,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회고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겨레가 본 김정은 최고령도자

새해 2012년에 조국인민들은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친백배의 고향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1월의 뱀뱀 주위는 수그리들줄 모르지만 군민의 애국열의는 대고조의 불길로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나지고있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잃은 너무나 큰 상실의 아픔으로 하늘도 빛을 잃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것 같던 그 비애의 바다에서 천만의 군민을 일으켜세워주고 강성부흥의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도록 떠밀어준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족대국상의 비보를 접하고 한달음에 조국에 달려온 저는 예도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TV와 신문을 통해 매일같이 보았고 또 직접 만나뵈기도 하였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계시는 그이가 아니라 너무나 뜻밖에도 어머니를 잃고 장군님께서 남겨두고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말아안으시고 홀로 서세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보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조국의 수천만 선배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눈물속에 아침해처럼 뵈고 또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자자들의 온몸으로, 심장으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을 절절히 느끼었습니다.

* * *
예도의 나날 겨레가 본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총정의 세계가 가장 깨끗하고 깊은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의식장들과 영결의 긴긴 저녁에서 생전의 모습으로 환히 웃고계시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보다 더욱 뜨겁게 오열을 터치고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던 조국동포들의 절절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온누리에 뿌리시며 다시 오신것만 같은 그 불멸의 영상은 바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장군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리움속에 사는 인민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안겨주시려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벌써

몇달전부터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친히 과업을 주시고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어 태양상을 완성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태양상을 어머니장군님께서 보시지 못하고 가시었으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만수대 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물속에서는 자애로운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피에 젖은 곡성이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수령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인민들에게는 수많은 기념비와 행복의 창조물들을 다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으니 그의 동상 하나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어딘가에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조국동포들이 부르짖는 절절한 웨침은 제 가슴도 갈가리 찢어놓는것 같았습니다.

사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정되어왔지만 오직 주석님 한분만을 생각하고 너무도 결사항신 장군님께서 일군들의 요구를 거들거들 만류하시어 동상을 끝내 건립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동포들은 더욱 가슴허비는데 얼마후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야외조의식장들이 거리거리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생의 모습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고결한 총정을 고마움과 격정에 넘쳐 청송하는 조국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예 도 의 나 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를 여섯차례나 찾으시어 가장 비뚤한 심정으로 예도의 뜻을 표시하시고 호상을 서시였습니다.

최고령도자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 인민 20백만 명이 되는 12월 24일에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성원들,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장군님의 령구를 찾으시였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의 거룩한 위업인 선군위업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100%

계승하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영원히 떨치시려는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세계앞에 보여주시는것이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장군님의 령구를 바래우는 영결식을 최상최대의 성의를 다해 거행하도록 해주신데 대해 사사람들은 지금도 감동에 겨워 이야기하곤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차가 금수산기념궁전을 한바퀴 돌며 천천히 거리를 향해 나오는 감동깊은 장면은 마치 장군님께서 환생하여 태양의 위업을 누리에 뿌리시며 승천하시는것 같은 격정과 눈물없이 볼수 없는 화폭이였습니다.

그날 온 겨레가, 온 세상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루종일 찬눈이 내리는 추위속에서도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장갑도 끼지 않았는데 령구차에 한손을 정중히 얹으시고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시던 모습을.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인민들과 마지막으 오레오래 상봉하시도록 100여회 영결의 거리를 펼쳐주시고 근 3시간 동안이나 령구차와 함께 달리신분도 총의의 최고귀감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십니다.

저는 영결식날 조국의 일군들로부터 이이께서 전날밤 몸소 통일거리를 비롯한 기나긴 도구간을 다 돌아보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길을 헤쳐오신 장군님께서 부디 편안한 길로 가시도록 도로의 상태도 가능해보시고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장군님께서 현지지도길에 오르실 때에도 자신께서 먼저 현지지도로정을 다 돌아보곤 하시었다는 그이께서 장군님 가시는 마지막길에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뜨거운 지성을 고이셨으니 이런 고결한 의리, 위대한 총정의 세계를 력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장군님께서 나라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그 힘겨운 조강도강행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지 않았으면 안되겠다고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에 싸여 눈물흘리던 조국동포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수령을 어떻게 받들고 잘 모셔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자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인민들이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불라는 총정의 마

음을 지니신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대장동지께서 계시어 어머니장군님의 혁명력사는 대를 이어 즐기차게 흐르게 되었다.》고 감격에 겨워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도기간 겨레가 본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친품으로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저는 민족의 대국상기간 조국에 체류하면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랑을 친품으로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이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워하고 따르며 통곡하는 훌륭한 인민의 모습을 보았고 이런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불같은 뜨거운 인민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계시는분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조의기간이라 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펼쳐주시고 합니다.

날에도 추운데 야외조의식장에서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게 하라고, 더운 물도 끓여 봉사하고 몸을 덥힐수 있게 가설물도 지어주라고, 추운 겨울날 땀물을 닦여주는것보다 더운물에 사랑가루를 풀어 봉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온정넘친 말씀을 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십니다.

조국의 남녀노소가 너도나도 조의식장들을 찾아가고 호상을 서는것은 장군님의 사랑만을 받아온 인민으로서, 사랑을 어머니로 모신 자식들로서는 너무나 응당한 도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보아도 부모가 돌아가면 상제들이 베풀어 입고 음식상을 벌여주며 자책으로 뼈를 깎고 살을 에이면서 3년을 하루와 같이 조상을 울리는데 하물며 민족의 어머니, 절세의 위인을 비롯하게 잃은 조국인민들이야 더 말할데 없겠습니까.

하진단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말고가고하신 인민들이 추위할때라도 사랑을 거들거들 돌려주시어라.

산골과 콩유유가루며 빵과 과자를 봉사하도록 하시고 야외가설물과 의료봉사대를 보내주어 6만개의 발원지들을 보내주어 인민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해주셨다니 민족의 대국상기간

에 펼쳐진 이런 눈물겨운 사랑의 전설이 세상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국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의식장에서 터치던 격정의 말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없습니까.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사나운 눈보라길을 한평생 걸으셨는데 우리가 오만한 추위에 호상을 서는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 대장동지는 정말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던 장군님 그대로이십니다.》

《장군님!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또 한분의 위인이 계시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흐릅니다.》

... 예도기간이라도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아야 한다고 하시고 긴급조치를 취해주시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은정이니는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해외동포대표단성원들은 모두 눈물을 적시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셨습니다.

그이의 세심한 사랑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배풀어졌습니다. 장군님의 령구가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을 때 우리 해외동포대표단성원들은 호상을 서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직접 만나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 해외동포대표단성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 뜨겁게 잡아주시었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장군님을 다시 비운것 같은 격정에 휩싸여 말씀하였습니다.

《대장동지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동태이십니다. 그 가슴터치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역세게 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장동지의 두리에 묻힌 일심단결이 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집견을 받았을 때의 그 심정을 간직하고 앞으로 영원히 대장동지의 령도를 따르겠습니다.》

부디 몸건강하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거듭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해외동포 조

의대표단성원들을 위해 목란관에서 사랑의 위로연도 배풀어주시었습니다. 대국상중에 연회라니 어디 생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해외에서 온 우리들을 위해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구미에 맞는가도 몸소 알아보시며 온정넘치는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그 성대한 연회장에서 우리들은 17년 전 어머니추석날을 뜻밖에도 잃고 목놓아울던 나날에 해외동포대표단성원들에게 위로연을 차려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어머니사랑이 되새겨져 더욱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습니다.

장군님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해외동포모두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이끌 어주시던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정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의하여 계속 뜨겁게 미치고있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조국을 위해 크게 한일이 없는 저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중앙추도대회와 주석단에 세워주시는 한없는 영광도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야말로 우리 해외동포들이 영원히 운명을 맡기고 따를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예도기간에 조국동포들과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 대해서도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번엔 국가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조의행사들은 어느것 하나 나무랄데 없고 규모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조의행사들이였습니다.

특히 금수산기념궁전에서의 영결식행사같은것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독특하고 숭엄하고 장중한 영결식이어서 온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 모든 조의행사들을 구상하시고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짜고드신분이 바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라고 합니다. 영결식행사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이께서 얼마나 천재적인 지략과 능숙한 조직력, 통 큰 정치지도력을 지니고 계시는가를 잘 알수 있지요.

너무도 뜻밖에도, 너무도 예석하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잃고 조국동포들은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심정도 다름없었습니다. 서방에서는 그 무슨 《국경공백》이니 뭐니

하는 제나름의 억측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 계시어 사소한 정치공백도, 동요와 혼란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대한의 사회정치안정속에 추모행사들이 진행되고 령도자와 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예도기간에 국경전반을 장악지도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침도 주시어 장군님 생존해계실 때와 같이 국가정사가 추호의 흔들림없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13일간의 예도기간은 우리 겨레와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고 경탄한 총격과 감동의 13일이였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이 짧은 나날에 그분께 완전히 매혹되고 자기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조국의 당,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등장하신것은 어머니장군님의 당부이기 전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원의 성취입니다. 인민이 그이를 최고령도자로,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아들여올린 것입니다.

저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처음 뵈을 때 벌써 그분은 보통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실 회사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었습니다. 그 빛나는 안광, 뚝뚝한 모습, 따뜻한 손길, 강인한 기상은 주석님과 장군님 그대로였습니다.

해는 바뀌어 새 주제 100년대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금수산기념궁전의 드넓은 광장에서 비움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숭엄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던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차를 모시고 척척 취임의 발걸음을 옮기시던 김정은최고령도자님.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업을 총칭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갈수 또한한분의 절세의 위인, 김일성조선의 새 100년대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찬란한 태양의 모습이였습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필생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스웨리에, 만마 인사 담화 발표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스웨리에, 만마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웨리에조선전선협회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1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통하여 지난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정책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지도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쟁애를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와 동족해결책을 동을 단죄하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 역적패당의 반동일적인 동족적대시정책을 짓부셔 버릴데 대하여 지적하고 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만마경제주권유환회사 행정총국 국장 탄 등은 2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공동사설을 통하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따라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뜻깊은 2012년에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은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대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시기자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

스위스단체들 인터넷에 글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조선인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과 관련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소가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제 100(2011)년 12월 3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존경하는 김정은장군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다.

존경하는 김정은장군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김정일총비서의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빛나는 력사적 사변을 계기로 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며 더욱 확고하게 일떠서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장군은 또 한번의 백두산형의 천재적인 선군령장이시다.

본시기자

김정은장군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심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김정일총비서의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빛나는 력사적 사변을 계기로 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며 더욱 확고하게 일떠서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장군은 또 한번의 백두산형의 천재적인 선군령장이시다.

본시기자

조선은 어떻게 되어 그렇듯 단결력이 있는가

중국신문의 글

중국신문의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번에 조선에서 진행된 김정일령도자를 추모하는 추도대회를 통하여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 김일성주석에 이어 사회주의나라의 가장 영향력있는분이사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비록 결보기엔 단지 서거하신분과 관련한 추도행사인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추도대회는 수령의

매혹적인 인격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조선은 어떻게 되어 그렇듯 단결력이 있는가? 첫째로, 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세계의 대다수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었지만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있으며 령장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령장들의 패권주의를 단호히 짓부시면서 시종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영생하신다》

중국에서 우표전시회 및 추도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한 나라, 한 민족뿐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따사로움 품에 안아 사랑을 베풀었고 민음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였다.

그처럼 위대한분이시였기에 그이를 너무나 잊지 못하는 진보적인류의 절통함과 비통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는것이 더욱다.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영생하신다》라는 주제의 우표전시회 및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함께 계시는 모습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사업시작, 여러차례의 중국방문, 조국통일업적 등을 보여주는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에는 베이징구러우우표수집연구회, 중국조선우표연구회 성원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예석하게 서거하신데 대하여 슬픔과 비통함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여 3분간 묵상하였다. 베이징구러우우표수집연구회 회장인 주주위

나라를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자신의 가정처럼 사랑하시는 수령을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은 흠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단결력이 강한 첫번째 원인이다.

둘째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조선의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시었다.

비록 조선의 물질적대대는 다른 나라들과 대등하지 않지만 조선인민은 총

분한 정신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있는 민족으로서 사회주의와 김정일령도자를 깊이 신뢰하고있다.

이것이 조선의 단결력이 강한 두번째 원인이다.

셋째로, 조선에는 빈부차이가 없다.

인민들은 직업과 의료, 교육, 살림집보장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편했다.

사람들사이의 평등으로 하여 조선은 매우 강한 구심력

을 가지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많은 물질적 부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부차이로 하여 수많은 모순이 생겨나 사회의 화목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일반적으로 인민들의 일자리와 의료, 교육, 살림집문제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빈부차이가 심하게 되면 정부는 구심력을 잃고만다.

조선에서는 생활수준이 고 르름기때문에 인민들의 마음이 하나와 같다.

이것이 조선의 단결력이 강한 세번째 원인이다.

본시기자

대사를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5일 정령 제2098호를 발표하였다.

정령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신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어 우리 인민을 혁명적인민으로 훌륭히 키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해 한평생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어머니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대를 이어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지적하였다.

정령은 민족최대의 명절이며 인류공평의 대장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지적하였다.

대사는 주제 101(2012)년 2월 1일부터 실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자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것이라고 정령은 지적하였다.

본시기자

체면마저 잃은자의 《진정성》 나발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민족의 대국상에 지지른 천주 만대의 대죄에 대해 온 겨레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대신 그 무슨 《진정성》 라명을 외워대며 또다시 공화국을 모독하고있다.

지난 5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무슨 《대화》와 《원칙》을 떠들면서 《진정성》 라명을 외워대었다. 이보다 앞서 그는 그 무슨 《신년국경특별연설》이라는데서도 《진정성》을 한바탕 떠들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완전 결단국에 정세를 위협치만 한 지경으로 몰아간데 대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철면피한 꾀변으로서 여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10여일에 이르는 예도기간에 조의방문을 철저히 회피하는 남녘의 민심을 헤아려 개성특구와 직할로를 열어놓는 등 온갖 편의를 다 보강해주었으며 보수당국에 한해서도 조의방문의 기회를 주었다. 그뿐아니라 방문기간 편의와 안전을 최대

한 보장한다는것까지 담보하고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리념보다 한쪽을 나눈 민족을 우선시하는 공화국의 따뜻한 동포애의 정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북측이 취한 조의방문보장조치는 그야말로 최대의 진정과 야망의 표시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기를 그만둔 남조선의 파쇼악당들은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에 《북행길봉쇄》와 파쇼적관입으로 도전해나섰다.

남조선당국의 파쇼적관입이 얼마나 비렬하고 야만적이었는가 하는것을 몇가지 실례로 놓고보자. 남조선파쇼당국은 이번에 일종의 《담배방문》을 승인한다고 하면서도 문외한목사유가족들과 로무원 《대통령》의 미망인 10.4선언체재때 평양에 왔던 인사들을 비롯하여 북과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조의방문요청은 막무가내로 차단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공화국과 더불어 체제대결의 불순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남조선보수당당의 반민족적악은 지금도 겨레의 치맛은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리명박보수세력이 집권 후 오늘날까지 저지른 그 무슨 《금변사태》에 대해 떠들며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칠 범죄적책계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꾸미겠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리명박을 위시한 역적무리들이 이번의 대국상기간에 저지른 대결소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류례없는것으로서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알려진것처럼 리명박을 비롯한 보수당국은 온 민족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대국상소식이 알려지자 저들이 바라던 《금변사태》가 당장 오게 된듯이 정세를 오만하면서 《비상경계령》을 내린다, 《비상대기》를 선포한다 하고 북대소동을 피웠는가 하면 인간이기를 그만둔 추물들을 내세워 비라살포와 같은 반공화국침략전을 벌리면서 북의 내부를 혼들여보려고 광분하였다.

그뿐아니라 그 무슨 《분리대응》을 운운하며 자기 정도자를 충정으로 받드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신임을 혼들여보려고 가스통계를 늘어놓았다.

나라와 민족앞에 《대결부》로 락인적인 통일부패거리들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누가 《홍바른 방

그런가하면 조의방문단을 못하고 평양으로 가려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원로들을 중무장한 군사장비들을 내놓아 총칼로 막아나서게 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밖에 남조선당국은 조문단 파견이 《최악의 국본분별과 내부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느니, 《상황을 수습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각종 리무니없는 구실을 붙여가며 각계중 인민들의 조의방문길을 야수적으로 가로막아나섰다.

조의방문단에 대한 남조선공안당국의 파쇼적악행으로 하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런대 공동대표는 목로로 불과 몇시간경도이면 다녀올수 있는 길을 남겨두고 멀리 타향으로 돌아와 평양에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아픈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공안당국은 《보안법》위반을 걸고들며 황해로 공동대표가 조의방문에서 돌아오는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독재의 칼을 버리는 망동을 부렸다. 이뿐이 아니다.

일마친 남조선국방부는 《2012년 업무보고서》를 통해 《북의 예상가능한 모든 도발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며 그 무슨 《전투경각군》을 육성하겠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그들은 보고서에 《적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고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모험적인 전쟁교리를 쏘아박았다.

이로부터 호전세력들은 미국으로부터 북의 군사대상물을 비롯한 주요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데 리용할 지상레이자표적지기를 2014년까지 200여대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그뿐아니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 신행대포병참지레이다와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한 감시 및 정밀타격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 하고있다. 군부호전장들의 이러한 책동은 공

하여 세계는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모습,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내세워 버린 때의 조의방문의 위대한 정신을 보았다.

대결의 색안경을 끼고 모든것을 거꾸로만 보는데 습관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제대로 보일 리 만무하다.

하기에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속대우에 올라선 민중이마냥 《금변사태》를 넘두어 두고 《홍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느니, 《개방과 발전을 향하여(좋은 선택)》를 해야 한다.》느니 튀니 하며 《체제통일》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사상이나 정치, 경제와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것이 아니고는 변변한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것을 외세에 의존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리명박 《정권》이 자력생성의 힘과 정진력으로 최첨단을 향해나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닭알로 바위치는 격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상실한 리명박 《정권》이 대국상기간 저지른 체제대결소동을 겪어는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파쇼당국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는 개성공업지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초상집에 조의를 표시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이며 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중대보도에 접한 첫날부터 개성공업지구의 자들인원들이 조의식장에 찾아가지 못하게 강박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들은 이 지구 기업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당국의 불허지침을 전달하는 눈물을 흘리는 한편 이를 어기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차려질것이라느니 튀니 하며 온갖 위협공갈을 다하였다.

지어는 개성공업지구로 일체 화환이나 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조의식장길목에

버티어서서 간간히 조사하고 조의표시를 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비렬한 추태도 부러였다.

동포애의 정도 무지막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반인륜적처사가 과연 세상 또 어디에 있었는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번에 조의방문을 가로막은 당국의 파쇼적관입안면들을 《편협함과 치졸함의 극치》, 《시정협박배들의 쯤쟁이(정부)》, 《소인배들의 야만행위》 등으로 신랄히 조소하며 단죄규탄하였다.

조선민족의 피가 꼬물당 염도 없는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북남관계문제를 운운하는것은 실로 가스통계 그지였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했처럼 반역무리들과는 결코 상종조차 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시 와멸의 창을 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종말을 앞둔자가
《신년국경특별연설》이라니
격분의 외성 터져오른다
《기회의 창》 열어놓았다는
만고역적의 그 망발에

하늘이 울고 땅도 몸부림치던
대국상의 그 나날
남녘겨레의 조문길을 총칼로 막아
운명의 마지막 기회
스스로 차버린 악당이
감히 누구에게 《기회》 라명인가

아버이를 잃은 동족의 가슴에
칼을 박은 역적
《기회》를 떠드는 그 꾀변은
보부의 피가 끓는 우리 가슴에
중요를 더해줄뿐이다
천백배 분노를 더해줄뿐이다

치cut아 노호하는 증오의 해일앞에
터져오르는 분노의 활화산앞에
두고보라, 네가 연 그 《기회》

우리 어떻게
역도의 숨줄을 끊는 기화로 만드는가
더이상 살길을 찾지 말라
준엄한 심판이 두려워
죽음이 무서워
천리만리를 뻘뻘하던
그 천리만리를 끝까지 따라가
결단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리

이제 역도에게 기회가 있다면
민족의 철추야래
재가루로 부서지는 죽음의 기회
이제 남은것이 있다면
죽어 몰릴 땅조차없이
최후의 불속에 타버리는것

패륜패덕의 왕초
희세의 만고역적 리명박은
《기회의 창》을 연것이 아니다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증오와 분노, 보부의 불바다앞에
비참한 와멸의 창을 열었다!

리철준

불몽치를 들고 와멸을 재촉한다

남조선호전장들이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마친 남조선국방부는 《2012년 업무보고서》를 통해 《북의 예상가능한 모든 도발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며 그 무슨 《전투경각군》을 육성하겠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그들은 보고서에 《적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고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모험적인 전쟁교리를 쏘아박았다.

이로부터 호전세력들은 미국으로부터 북의 군사대상물을 비롯한 주요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데 리용할 지상레이자표적지기를 2014년까지 200여대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그뿐아니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 신행대포병참지레이다와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한 감시 및 정밀타격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 하고있다. 군부호전장들의 이러한 책동은 공

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군사적 도발로서 악화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대결소동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이번 민족의 대국상기간에 조의를 표시하는것은 고사하고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꺼내드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죄악을 저질렀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 《정권》이 저지른 만고의 대역적죄에 치맛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역적무리들과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자그마한 리성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민족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것이 마땅하다.

남조선군부세력들이 사죄는커녕 새해벽두부터 전쟁대결소동에 미쳐 날뛰는것은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켜 이 땅에 거어어 전쟁의 불기름을 불아올려놓는것의 다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서해일대에서 군사적충돌이 기정사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서해지역이 조선반도의 《화약고》로 불리우리만치 정세가 제일 긴장한곳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당국은 서해일대에 초점을 두고 온 한해동안 외세와 야합하여 연합대잠수함훈련과 대규모적인 포사격훈련을 비롯한 무력도발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아 가득 격화시킨 이 지역정세를 더 한층 격화시켰다.

내외호전광들의 거들되는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적도발소동으로 하여 오늘 서해일대에서 생방간의 물리적충돌은 곧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서해일대에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하는것은 그대로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재촉하는 촉매로 될것이다.

실제로 남조선과 미국은 이달말 지난해부터 거론되여오던 남조선미

국 《공공지도도발대비계획》에 공동서명하기로 하였다.

《유사시》의 미군개입은 물론 소규모적인 국지전에도 미군의 모든 무력이 총동원되는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지도도발대비계획》은 자그마한 무력충돌의 불시라도 전면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위험치만한 전쟁도발계획이다.

만일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 긴장한 서해일대에서의 군사적충돌이 제2의 조선전쟁의 서막으로 되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현실은 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국악한 전쟁광신자들이 남조선에 있는 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는 법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내외의 거들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땅에서 평화를 지르다만 쌓이고쌓인 공화국의 분노의 폭발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것인가를 뼈아프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김현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반민족적책동에 앞장서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대결의 극치

이번의 대국상기간 리명박 《정권》이 저지른 범죄적책동은 《체제통일》 명칭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범주적소동이 이제는 도수를 넘어 더 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당국이 흡수에 배긴 《체제통일》 명칭을 쫓고 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겠다는 격의 부질없는것에 불과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하늘이 울고 땅도 몸부림친 10여일의 대국상기간 세계의 방송과 TV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은 물론 철없는 아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는 전민족적인 애도분위기를 전하면서 세상에 류례가 없는 이 광경의 진정을 알자면 조선에 가보라고 하였다.

이번의 대국상기간을 통

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느니, 《개방과 발전을 향하여(좋은 선택)》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주제넘은 훈시질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며 체제와 제도를 어찌보겠다는 분주당을 피웠다.

동족의 불상사에 온전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려려 그것을 대결의 기회로 삼아 칼을 들이대는 리명박 《정권》의 반인륜적책동은 천하에 들도 없는 불망나니 짓이다.

이런의 대국상기간 리명박 《정권》이 저지른 범죄적책동은 《체제통일》 명칭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범주적소동이 이제는 도수를 넘어 더 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당국이 흡수에 배긴 《체제통일》 명칭을 쫓고 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겠다는 격의 부질없는것에 불과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하늘이 울고 땅도 몸부림친 10여일의 대국상기간 세계의 방송과 TV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은 물론 철없는 아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는 전민족적인 애도분위기를 전하면서 세상에 류례가 없는 이 광경의 진정을 알자면 조선에 가보라고 하였다.

이번의 대국상기간을 통

부패 《정권》, 부패정당의 말기증세

《저자신과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것을 지적하며 여기저기서 드러나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를 놓고 남조선의 리명박이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지기도 전에 리명박의 심부름의 심복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의 주변에서 콤직한 부정부패사건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그 며칠후에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동봉투사건》이 또 드러났다. 2008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표후보들과의 한명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들고 다니며 나누어주었다는것이 이번에 폭로된 사건의 내용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매일과 같이 새로운 비리가 터져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당》, 《차떼기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벼속까지 썩은 《한나라당》》, 《《만사돈통》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오물통이 터지면 온갖 쓰레기와 악취가 솟아나오기마련이지만 리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처럼 썩을대로 썩어 사회를 오염시키는 부패 《정권》, 부패정당은 찾

아보기 힘들것이다. 리명박이 집권한 때로부터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사촌재남, 처사촌언니, 사돈동 부정부패사건을 저질렀거나 그의 후이 제기된 친인척수나 무려 10여명에 달하며 그중에는 감옥신세까지 진자들도 있다.

《만사돈통》으로 알려진 리명박의 형도 측근부패사건으로 이번 《총선》에 나설수 없게 되었다.

지어 리명박자신도 지난해의 《내곡동사지부지급 의혹》으로 몸살을 앓으며 《한나라당》내에서 《천리꾸러기》로 취급당하고 탈당까지 강요받았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스폰서 검사사건》, 《합법집로비사건》,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최근 몇해동안 남조선사회를 놀라게 한 콤직한 부정부패사건들은 모리 또 《한나라당》 출신이고 리명박의 손발노릇을 하는자들에 의해 저질러진것들이다.

지난해말에 드러난 《사이버선거운투사건》과 그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결과발표》도 그 대표적 실례이다.

《교주마줄기개뿔 터져나오는 친인척비리》, 《대형부패비리의 근원지가 모두 리명박(대통령)의 근거리

에 있다.》, 《력사상 가장 방대한 부패백과사전이 리명박(정부)의 권력실세들에 의해 편찬되고있다.》는 인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기는 《당대표》자리도 돈으로 사는자들이니 권력과 돈이면 못할것이 없는것으로 여기는 리명박당당이 야말로 남조선사회를 타락과 암흑으로 떠밀어가는 부패의 온상이고 원흉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가관은 이번 《전당대회 동봉투사건》을 두고 《환골탈태의 쇄신》을 위해 모지름쓰고있는 《한나라당》내부에서 서로의 리득권을 위한 개싸움 또한 치열하다느니라.

《재창당》과는 《모든것을 바꾸는 재창당이 불가능하다.》는 《당해제》론을 다시 들고나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파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쇄신》을 부르짖고있다.

하지만 《재창당》이나 《쇄신》이나간에 이것은 모두 《당》내에서 득세를 차지하기 위한 물고뜰기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보다 리명박측근들에게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

구하고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결집을 물고늘어지고있는 천리(리명박)파의 《쇄신의 칼》이 저들에게도 미칠가봐 두렵기리마는근히 견제하고있는 천박(박근혜)과 등이 서로 눈을 부라리며 제 리득을 차리기에 급급하다.

부패 《정권》, 부패정당의 말기증세를 뚜렷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원조상인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당》간에는 몇몇이나 바뀌었고 2008년부터 집권 4년간이 넘게 《한나라당》이 《쇄신》도 수없이 한다고는 하였지만 달라진것은 꼬물만으로도 없다.

바뀐것이 있다면 남조선인민들을 놀라게 협잡하고 강탈하는 부정부패수법뿐이다.

제 버릇대로 못 준다고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뿌려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거액의 금전을 챙기는데 환장한 부정부패의 무리들이 《재창당》이니, 《쇄신》이니 떠들어대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패 《정권》, 부패정당의 말기증세를 보이며 보수집권세력은 와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지난 5일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기자회견이라는데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느니 《협상》이니 하며 떠들여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북간 고위급대화통로가 구축되는데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협의할것》이라며 북남사이의 대화제계를 위해 무엇이든 할것처럼 가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들의 반인륜적책동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그 무슨 《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척사이다.

그런 그들에게 《대화》라는 말을 입에 올릴 령치가 있는가. 령어놓고 말하여 이번 대국상기간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으로서, 대화일방으로서 북에 조문도 보내고 조의식절단도 파견하며 남조선에서의 추모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집권기간 북남관계에서 저지른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대화상대방인 북을 대하는데서도 어느정도라도 체면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대국상에 대한 중대보도에 발표되자마자 전군에 《특별경계령》을 하달한데 이어 전경찰에 《갑호비상령》을, 전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으며 《안전보장회의》니 하는것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이른바 《비상사태》에 대처할 《방안》이라는것까지 모의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들은 예도의 뜻을 표시하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여 탄압하였을뿐아니라 조의를 표시하며 북행길에 오르는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의 앞길을 총칼로 가로막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대국상을 기화로 북에 그 무슨 《변화》가

기를 꿈꾸면서 이른바 《대북정보수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부, 처들을 《대비태세》에 진입시키느니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을 부렸다.

이런자들이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얼마나 파멸치한가.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반인륜적책동으로 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아니라 돌이킬수 없는 대결국면이 조성되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입제간을 부리던 자기의 반인륜적, 반민족적책동을 가리울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그치고 매는 늦었다.

그들이 《대화》를 떠드는것은 저들에게 쏘리는 민심의 무서운 눈초리를 모면하고 동족대결정책을 추수하기 위해서이다.

일마친 리명박이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갔겠다.》고 떠들고 남조선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서》에 《대응》이니 튀니 하며 공화국을 타격하기위한 전쟁교리를 쏘아박은 사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역적들이 감히 대화에 대해 떠든다고 하여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공화국은 이미 성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인민의 초보적인 갖춤새도 없는 남조선당국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자기의 반인륜적책동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계속 오그랑수를 쓰며 교리를 사리려 하지만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만사돈통》

《현일(대통령) 주변에서 비리복마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자체경선과정의 부패비리가 탄로났다.》

《당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 정말 《한나라당》은 만사가 돈이면 다 되는 《만사돈통》 정당》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에서 보수를 빼자는 주장이 있다는데, 여기서 보수는 《리념의 보수》가 아니라 《돈의 보수》를 말하는가보다.》(《한나라당》에서 터진 《돈봉투사건》을 놓고 비판한 민주통합당 오종석대변인의 론평중에서)



부실수사

북남관계를 완전 파국으로 몰아넣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백서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하는 반민족적, 반민족적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완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반통일대결정책이 빚어낸 최대의 극악무도한 죄악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4년동안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악화시켜왔으며 피피들의 대결책동은 지난해 절정에 이르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저지른 최악 가운데서 북남관계를 최극단으로 몰아간 지난해의 범죄기록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피피패당은 북남대화과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위기가 심화되자 그를 모면하기 위해 5월 내적인 비밀접촉에 나와 저들의 체면을 세워보려고 돈봉투까지 내밀며 치사하게 놀아내다가 망신만 당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민간대화도 다 짓밟아놓았다.

우리는 지난해에 북남협력사업의 상진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소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남조선의 현대측과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 합의를 보지 못하도록 훼방질하였으며 우리가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을 발표한 후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남측기업가들의 재산등록사업과 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당사자들이 실무협상과 재산등록에 나을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각방으로 방해하고 제동을 걸어 끝내 거부하였다.

지난해 역적패당은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쳐 민간단체들이 제3국을 통해 우리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것은 물론 통신연계를 가지는것까지 모두 규제대상으로 정하여 차단하였으며 개별적단체들의 인도주의협력사업도 《현장확인》이요 뭐요 하는

부대조건을 내걸며 극력 제한하였다.

그러하여 북남협력사업들이 모조리 중단되고 남조선 민간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되거나 폐업의 위기에 처했으며 협력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이 생사기रो에 처하였다.

특히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제기한 우리측과의 접촉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역사적인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을 계기로 진행하려던 민족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

남조선의 정진대문제대처협의회가 3.1인민봉기기념일을 맞아 발표할 북남여성단체들의 공동선언문협의를 위해 우리와 통신연계를 가지는것도 차단하고 9월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보내는 조의문을 전달받기 위해 남측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성으로 오는데도 가로막았다.

북남사이에서 대화가 시작되어 40년의 력사가 흘러왔지만 리명박역적패당처럼 북남대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차단한 폭군들은 처음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명박역적패당에게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꼬물만치도 없으며 오직 대립적대결의 인도주의협력사업도 《현장확인》이요 뭐요 하는

자이 출근길에 나선 임시부까지 잔인하게 끌여가는 비인간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속에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흠모와 동경심이 확대되고 량북통일을 주장하는 반진물들이 전파되는것을 막기 위해 피피패당은 지난해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90여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고 무려 8만 수천건의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모조리 체포구금하면서 탄압에 미쳐날뛰었다.

지난해 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피피패당은 이른바 《북의 싸이버러》를 떠들어대면서 4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컴퓨터망마미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고 8월에는 온라인 게임프로그램킹사건이라는것을 들고그나와 반공화국광기를 부리었다.

또한 간첩단사건이니, 암살조사건이니 뉘니 하는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날조하여 대결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피피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를 비롯한 정보모략기관들과 극우보수단체들, 추악한 인간스캐기들을 동원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불순한 목적의 활동들을 설치하고 우리 체제를 중상모해하는 페라와 DVD, 소형라디오 등을 우리측 지역으로 살포하는 반공화국심리전에 발판적으로 매달았다.

그리고 국제법을 란복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TV방송통로와 같은 통과수역으로 반공화국방송 TV방송을 송출하는 비렬한 놀음도 감행하였다.

피피패당은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보려고 하는 발악을 다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과 해외의 불순세력들을 서울에 모아놓고 《북자유주간》이니 뉘니 하는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을 벌렸다.

그러간하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약탈하게 할것은 이른바 《북인권백서 2011》이라는것을 만들어 내뉘리고 그 누구의 《인권실례》를 조사한다는 국제조사위원회 설치를 다그쳤으며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벌리었다.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대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피피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노물을 뿌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댔으며 《북지도부와 주민분리대응》을 웨치면서 감히 우리의 일심단결을 흔들여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냈다.

피피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당국재거리들과 《한나라당》 떨기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조의모습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모독

하였는가 하면 야당들과 각계층 단체들의 조문을 한사코 가로막았다. 또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꾸려놓은 분향소에서 조의표시를 하는것마저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어 역적패당은 영결식이 거행되는 날에 30여개의 우익보수단체들을 군사분계선지역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소욕을 선동하는 반공화국베라들을 살포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

북남대화제안에 대한 전면거부

지난해 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련합성명을 통하여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만나 북남관계개선문제들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협의, 해결해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에 따라 1월 8일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며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것을 공식 제의하였다.

그리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되었던 관문적적사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협회의 사무소의 동결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여러 갈래의 북남회담들의 제와 날차, 장소 등을 밝힌 조선아시아태평양양평위원회,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중앙투기개발지도총국 등의 통지문을 남측의 해당 기관들에 보내었다.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 실천적인 조치들은 온 민족과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피피패당의 태도는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이였다.

남조선피피당국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진정성이 없다.》느니, 《통일전선진술》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우리의 대화제의를 악랄하게 헐뜯고 비방하는데 열을 올렸다.

특히 《핵폐기》와 《천안》호 사건, 연평도문제 등 부당한 조건부를 내세우며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지어는 대화상대방의 권능까지 주제넘게 시비질하면서 대화를 외면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풀여보려는 일념으로 1월 14일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모두 회담탁에 올려놓고 토의하자는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안을 다시금 내놓았으며 20일에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데 대한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공개서한도 발표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협상제의로 곤경에 빠진 피피패당은 마지못해 군사예비회담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고의적으로 복잡성을 조성하다가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달아나는 망동짓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접촉도 파탄시켰다.

당시 피피통일부 장관이었던 현인택과 그 패거리들은 《리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를 정치적문제와 분리할 생각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의 적십자회담제의에 부당한 정치적조건부를 내걸고 응하지 않고있다가 《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킬만 한 상황이 아니》라 고 떠벌이며 끝내 회담을 파탄시켜버렸다.

피피패당은 2월 조선서해상에서 표류당한 우리 주민 31명을 강제참치하여 온 2개월동안이나 억류해놓고 귀순을 강요하는 비인도적행위를 감행하면서 주민송환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십자회담제의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처럼 남조선피피당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우리가 제기한 북남대화국간 국장급실무접촉, 북남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접촉 등이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극악한 동족대결과 반공화국모략소동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해에 입만 벌리면 우리 체제를 함부로 시비하고 주체넘는 상대질을 하면서 《3단계 통일방안》이니, 《통일세》니 하며 어리석은 체제대결야랑을 들떠 돌아다녔다.

이들이 《통일은 도적같이 한반도에서 온다.》는 정신병자의 잡꼬대같은 망발을 늘어놓아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역도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여러차례나 미국에 찾아가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으며 《내외의 비판을 받더라도 대북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망언을 공공연히 제쳐냈다.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선 피피통일부는 2011년 업무계획에 《북의 변화 유도》를 명시하고 《급변사태》망상에 빠져 위기관리반이라는것을

실질하였는가 하면 7월에는 반공화국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불순한 《통일교육》교재들을 꾸며내어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과 도서관, 교육 및 연구기관들에 배포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한편으로는 대결정책전환과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에 대한 파초적란암을 강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각계층의 량북통일기운을 거세, 말살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역적패당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을 방문 하였던 한상렬목사를 1년이 넘도록 감옥에 가두고 모진 약행을 가하던 끝에 약령놀이 《보안법》에 걸려 중형을 들쳐우고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등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였다.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봉을 일으키고

자이 출근길에 나선 임시부까지 잔인하게 끌여가는 비인간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속에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흠모와 동경심이 확대되고 량북통일을 주장하는 반진물들이 전파되는것을 막기 위해 피피패당은 지난해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90여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고 무려 8만 수천건의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모조리 체포구금하면서 탄압에 미쳐날뛰었다.

지난해 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피피패당은 이른바 《북의 싸이버러》를 떠들어대면서 4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컴퓨터망마미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고 8월에는 온라인 게임프로그램킹사건이라는것을 들고그나와 반공화국광기를 부리었다.

또한 간첩단사건이니, 암살조사건이니 뉘니 하는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날조하여 대결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피피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를 비롯한 정보모략기관들과 극우보수단체들, 추악한 인간스캐기들을 동원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불순한 목적의 활동들을 설치하고 우리 체제를 중상모해하는 페라와 DVD, 소형라디오 등을 우리측 지역으로 살포하는 반공화국심리전에 발판적으로 매달았다.

그리고 국제법을 란복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TV방송통로와 같은 통과수역으로 반공화국방송 TV방송을 송출하는 비렬한 놀음도 감행하였다.

피피패당은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보려고 하는 발악을 다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과 해외의 불순세력들을 서울에 모아놓고 《북자유주간》이니 뉘니 하는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을 벌렸다.

그러간하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약탈하게 할것은 이른바 《북인권백서 2011》이라는것을 만들어 내뉘리고 그 누구의 《인권실례》를 조사한다는 국제조사위원회 설치를 다그쳤으며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벌리었다.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대 절정에 이르렀다.

더욱 무분별해진 북침전쟁책동

지난해에 리명박역적패당은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여 달달이로써 엄청난 군사적총동원력을 조성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

피피패당은 1월초 그 누구의 《도발》을 가상한 비상전투배치훈련과 공격용직승기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사격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은 한해동안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피피군부대들은 2월말부터 피피군, 예비군 등 수십만명들을 동원하고 방대한 미제침략군과 미항공모함을 포함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피피 특, 해, 공군,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과 미제침략군과의 련합연대에 의한 공중전연습도 벌리었다.

5월말부터 6월초사이에는 《태극》훈련을 벌려놓고 미제침략군과 피피군기회보병부대들사이의 교전연습을 하였으며 8월에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고 뒤이 9월에는 미국남조선련합실란 사격훈련, 해병대련합훈련, 미군 급유기에 의한 전투기공중급유훈련, 대잠수함훈련, 분계선지역에서의 야외기동훈련 등 북침을 가상한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연평도포격전이 있는지 1년이 되는 지난해 11월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피피합동참모본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가하에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위협하였다.

매국역적 리명박은 우리에게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은 연평도포격사건에 앙심을 품고 《천추의 한이 된다.》느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고 광기를 부리며 북침도발을 앞장서 선동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하고 《철저한 응징》을 력설하는 《축사》까지 보냈으며 직접 피피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적대감과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놀음을 누구보다 악랄하게 벌리었다.

역도의 부추김에 열이 오른 피피군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호전광들은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하겠다고 뉘니 하는 폭언들을 웨치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무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었다.

피피군부대당은 지난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전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 온 민족의 격분이 더욱 하늘에 닿게 하였으며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아오르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야말로 대결과 전쟁의 최고광신자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 주고있다.

이런자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심판만이 차례질것은 없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1월 12일 평 양

최우수우표상을 받은 조선우표

지난해 11월말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중국 제10차 의국최우수우표선발경연이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이 경연에 공화국은 2003년부터 참가하고있으며 올해까지 련속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열번째로 열린 이번 외국 최우수우표선발경연에 공화

국에서는 우표 500여점을 출품하였다.

경연에서는 공화국의 우표에 또다시 최우수우표상을 수여하였다.

시상식이 중국주제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 각국의 우표사대주단과 대표들, 중국 우표선제조사들의 참가하에 지난해 11월 24일에 진행되었다.

경연조직위원회는 련속 경연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있는 공화국이 특별영예상과 증서를, 공화국의 우표 《동물》에 최우수우표상과 증서를 수여하였다.

최우수우표상을 수여받은 조선우표들은 4상(《표범》, 《곰둥이》, 《원앙》, 《참대곰》)이다.

본사기자

경연조직위원회는 련속 경연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있는 공화국이 특별영예상과 증서를, 공화국의 우표 《동물》에 최우수우표상과 증서를 수여하였다.

최우수우표상을 수여받은 조선우표들은 4상(《표범》, 《곰둥이》, 《원앙》, 《참대곰》)이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리조봉건 국가의 성립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1392년)을 사용하였으며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기원》을 썼다. 그리고 20세기초에는 《단군기원》(《단기》)도 쓰여진적

이 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의 령아로 놀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오갈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리조봉건 국가의 성립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1392년)을 사용하였으며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기원》을 썼다. 그리고 20세기초에는 《단군기원》(《단기》)도 쓰여진적

이 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의 령아로 놀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오갈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리조봉건 국가의 성립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1392년)을 사용하였으며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기원》을 썼다. 그리고 20세기초에는 《단군기원》(《단기》)도 쓰여진적

이 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의 령아로 놀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오갈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리조봉건 국가의 성립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1392년)을 사용하였으며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기원》을 썼다. 그리고 20세기초에는 《단군기원》(《단기》)도 쓰여진적

이 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의 령아로 놀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오갈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까지 리조봉건 국가의 성립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1392년)을 사용하였으며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기원》을 썼다. 그리고 20세기초에는 《단군기원》(《단기》)도 쓰여진적

이 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의 령아로 놀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오갈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단편 소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은 내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예를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뉘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너자매뉘에...》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시에 리질듯 날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짊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스치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림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흥분을 팡팡 두드렸다. 나도 잠겨